



2011. 3

www.worldview.or.kr



CHURCH & MISSION

개혁주의 신앙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두레교회

WORLDVIEW COLUM

질문하는 신앙

구제역이 남긴 것들

스쿠크법, 문제있다

부자된 한국이 행복을 누리는 길

MOVIE REVIEW

손병화의 로고시즘, 말씀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논문 모집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과 발전방향

2011 5. 21(토) 10:00-19:00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홀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고민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2011년 기학연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시간계획	발표 논문 모집 요강
09:30 - 10:00 대학원생 등록	분야 기독교세계관, 교육, 경제/경영, 문학/철학, 문화예술, 상담심리, 자연과학 등 주제와 관련 있는 논문을 환영 하나 이에 관한 논문으로 한정하지는 아니함.
10:00 - 12:00 대학원생 논문 발표	
12:00 - 13:00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록	논문 발표 신청 접수 2011년 4월 23일까지 신청 내용 발표자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 제목, 연락처 논문 원고 제출 2011. 5. 9 (신앙과 학문 편집규정 참조) 대학원생 논문 시상은 원고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함.
13:10 - 13:30 개회식 및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 수여식	
13:30 - 15:00 주제 발표 김홍섭 교수(인천대) 장수영 교수(포항공대) 정희영 교수(충신대)	발표 신청 및 논문 원고 제출처 ① ② 두 곳에 동시 제출 요망 ① ecothk@mju.ac.kr(김태황 교수/ 학회 총무) ② gihakyun@daum.net(기학연 사무국)
15:00 - 18:00 세션별(5개 분과) 발표	
18:00 - 19:00 만찬	

● 문의 : 02-3272-4967(기학연), 02-754-8004(세계관동역회) 발표 논문은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시 우대합니다.



MARCH 2011 VOL.129

발행인_손봉호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출판위원_유정철, 김승태, 김건주

제작_한국학술정보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j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WORLDVIEW의 표지사진을 기다립니다. 성경적 마인드로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회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 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THEMA

04 질문하는 신앙_강영안

CHURCH & MISSION

12 세계관 목회 리포트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_오세택

WORLDVIEW COLUM

16 구제역이 남긴 것들_유정철

22 신앙의 관점에서 본 공정과 상생_한정화

25 수쿠코법 반대, 문제있다_김승욱

30 부자된 한국이 행복을 누리는 길_조성표

CULTUR

34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언제나 마음으로 불러야_김명열

36 말씀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다_오의석

BOOK REVIEW

40 청소년 생각캠프_유경상

BOOK REVIEW

44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_송인규

WORLDVIEW NEWS

48 활동보고와 회원소식

50 회비 및 후원안내

질문하는 신앙

글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유차해 보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번은 제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툰 일이 있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들 정도였으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았다면 간담이 서늘해져서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감히 말조차 끄집어 낼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했으니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살자고 제안 했던 베드로의 경우도 웃음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들과 바리새인의 차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던 중 귀신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예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고 예수께 그 여인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자신들이 내쫓기에는 여인의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에 아이들이 예수께 몰려오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막았다. 아마도 아이들은 쉽게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인가?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보다는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 것인가? 피터 팬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

잔치 집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 포도원 비유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한 일은 유대인들의 거부였다. 세리와 창녀들,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무시하였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은 단순히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제대로 살아 보겠다고 결심하고 모인 무리들이 바리새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熱心)이 특심(特甚)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볼 수 없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왜 그럴까? 어린 아이들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의 질문은 진정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아니라 ‘덧을 깐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다.”

바리새인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는 답이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있었다. 예수께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답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호기심과 질문이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권위 있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분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은 찾아 왔을 것이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가 가르치는 말은 정말이예요?” 아이들은 아마도 예수께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보기에는 이 들밖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었다. 혹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했는데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도 질문을 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웃이 누구냐? 중요한 질문을 했고 중요한 답변을 그들은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은 진정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직하게, 진심으로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아니라 ‘덧을 깐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답변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답변을 질문 삼아 다시 예수를 보았다면 그들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라.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행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의 호기심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를 직접 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싼 탓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생각해 보라. 삭개오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었다. 그는 세관의 높은 관리였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만 것이다. 무엇이 사회적 위치나 그의 체면을 이토록 무시하게 만들었는가?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하는가? 이 물음이 체면 불구하고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부끄러움을 누를 정도의 질문을 가진 이는 복이 있을진저!

질문은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자가 되면 더 이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모든 답이 이미 주어졌다고 믿는가? 왜 교회에 들어서면서 머리는 떼어 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오는가? 그렇게 하고는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는 가슴은 외면하고 애써 머리만 돌리려고 그렇게도 애쓰는가?

묻는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

자.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는 물음을 강조한다. 인간 실존을 논할 때 그는 인간을 무엇보다 물음을 던지는 존재로 본다. 물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이데거 철학은 답을 곧장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문제는 질문을 하고는 곧장 답을 제공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고, 제대로 묻는 것은 물음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인 '존재'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 보되, 손쉬운 답을 찾기 보다는 이 물음 속에 머물면서 물음의 길을 계속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물음을 묻는 것은 사유의 경건"(Fragen ist die Frömmigkeit des Denkens)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 "신학자들은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하고 철학자는 답을 하지 않고 묻기만 한다"는 말이 생길 법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철학자들은 답을 주기 보다는 묻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능한 답으로 주어진 것을 보면 또 다시 물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답이라도 잠정적일뿐 결정적으로 질문하는 입을 막게 할 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의 전형인 소크라테스를 보라. 자기 아버지를 종교 법정에서 고발하고 나오면서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에우티프론에게 소크라테스는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고 따지기 시작한다. 에우티프론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맡은 사제이기 때문에 '토 호

시온'(to hosion),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종교적 의무' (흔히 이 말을 '경건'이란 번역한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나처럼 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한 것이고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지 말고 보편적인 특성을 통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구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신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쳐 말하자 소크라테스는 신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들의 사랑을 받더라도 다른 신들의 사랑은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 에우티프론은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가고 종교적 의무에 관한 토의는 정확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군인을 만나면 용기에 관해서 묻고, 정치가를 만나면 정의에 관해서 묻고 덕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처했던 수사학 선생들을 만나면 덕에 관해서 물었다.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하는 일, 곧 철학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질문은 그에게 철학하는 방법이고 철학 자체였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무지(無知)의 지(知)

소크라테스는 왜 질문을 던졌는가? 소크라테스는 하늘의 달과 별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한 때 그도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그가 관심을 둔 질문은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의 삶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도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기능'에 관심을 두었다. 사람으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헬라스 사람들이 '아레테'(arete)라고 했는데 이것을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비르투스'(virtus)라고 옮겼고 이것을 뒤에 영어로는 '버추'(virtue)라고 옮겼고 다시 이것을 일본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엄음'이란 뜻을 가진 덕(德)이란 기존의 단어를 써서 옮겼다. 소크라테스는 칼의 덕, 칼의 아레테가 날카로움에 있고, 말의 아레테가 날쌔게 있듯이 사람에게도 사람으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 곧 아레테가 있다고 보았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것들이 그 목록에 들 수 있는 것들인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이 먼저 무엇인지 정확

하게 알기를 원했다. 만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확한 '정의'(definition)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의 용어로 말하자면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에우티프론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법원에 고발한 것이 '신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알고자 했고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식을 흔히 '무지(無知)의 지(知)'라고 부른다.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였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계속하기에 아테네의 시인들, 정치가들, 기술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귀족 출신 청소년들이 그를 모방하여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명을 목에 걸게 되었다. 더구나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다른 신을 도입한다'는 죄명도 함께 얻었다.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소크라테스는 가까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 세상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 했다. 그런데 세인의 눈으로 볼 때 가련하게 죽어간 소크라테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일관성의 관점이나 인격적 정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만큼 탁월한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했던 내용과 크리톤과 했던 대화를 읽어 본 사람이면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성의 법정에 기소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잃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그가 가르치고 주장한대로 죽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의견



사람의 욕망은 '모방'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타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므로 질문도 순전히 개인 중심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나 감정, 가족의 상황이나 친구들의 부탁이 아니라 오직 이성에 근거한 합법성에 따라 행동해야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성의 법정에 불러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칸트는 소크라테스를 따랐다. 칸트는 '이성의 법정'을 일컬어 '순수이성비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형이상학 문제에 한정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칸트는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성의 월권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감각적인 자료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과 지성을 이용해서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원의 불멸이나 자유의 문제나 신의 존재는 이론 이성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렇게 한 뒤, 이 문제들은 실천적 삶의 영역으로 이관시켰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영혼의 존재와 도덕 세계의 공정한 심판자인 신의 존재, 그리고 도덕 행위자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자유를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근거로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유명한 '실천 이성의 요청'이라는 말의 내용이다.

소크라테스의 문제

소크라테스도 사실 우리 영혼의 불멸과 인간의 자유와 신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대부분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볼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더 좋은 나라에 가는 의의 기쁨을 드러낸 것이나 자신

의 철학자로서의 활동이 잠자는 아테네인들에게 쇠파리가 되어 그들을 일깨우도록 신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한 것들을 볼 때, 소크라테스를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로 볼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이라든지, 용기가 무엇이라든지, 지혜가 무엇이라든지 어디서든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한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신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덕에 대해서 잠정적이고 보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덕에 따른 실천적 행위에 대해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근거가 없었다. 금욕주의자도 쾌락주의자도 상대주의자도 절대주의자도 아닌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는 계속 묻고 계속 숙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유의 경건'을 철저히 수행한 이었던가?

소크라테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을 통해 수용되어 오는 지식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통을 통해 비록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지닌 지식(common knowledge)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개념들과 판단도 마치 삼각형에 관한 기하학적 개념과 판단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 오늘날 흔히 '가치 개념'이라 부르는 것들은 삶의 세계와 공동체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있었다. 만일 정확하게 알아야 행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행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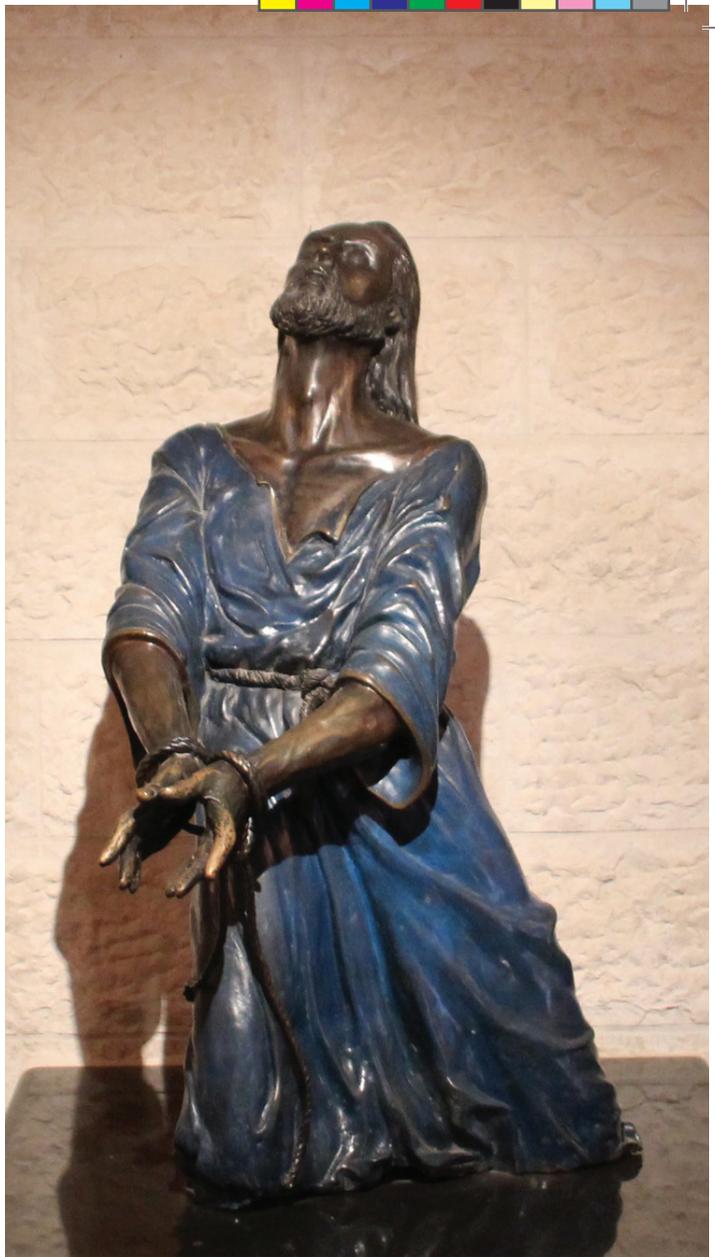
8_worldview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도덕적 행위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말해야 한다.

질문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다시 반복하자면, 질문조차도 사실은 삶의 세계에 뿌리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거나 무시한 것이었다. 삶의 세계는 많은 전제들, 많은 선지식(先知識)들, 많은 의견들을 담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틀린 것들 일수도 있고, 개연성은 높지만 따져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식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 체계를 대부분 따르고 이 체계에 따라 사물을 지각하고 행동을 판단한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망치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초, 중기의 후설뿐만 아니라 오늘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는 쾌락주의 전통을 만든 사람도 있고 회의주의자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고, 이상주의자도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후예라 해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오직 이성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 이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상상력, 전통, 일상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얻는 지식과 통찰,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이성만으로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이제 다시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왜 우리는 질문을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 지금 6시 반입니다.”라고 답한다. 그 답을 들은 사람이 “아이구, 큰 일났네요. 6시 반에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라며 급하게 나갔다. 이 경우 질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질문을 하였는가? 여기에는 우선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 질문이 가능하려면 우선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말(몸짓과 글 등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수단 전체를 포함해서)이 없다면, 그리고 말이 서



로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동물과 사람 사이는 배제된다. 둘째로, 질문은 무엇을 묻는지 주제가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는 말이나 글, 몸짓 등 표현 수단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간을 묻는지, 길을 묻는지, 아니면 밥을 먹었냐고 묻는지 무엇을 묻는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질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을 묻는지 모른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질문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 없다. 질문은 “(언어를 포함한) 표현 수단을 매개로 질문 주제를 두고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 타인으로 구별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묻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몇 시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아, 지금 6시 반이네. 빨리 가야겠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한 의사 소통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든 의사소통이 되려면 표현 수단으로 쓰인 언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시간이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구가 나에게 지금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 알려 줄 수 있다는 것 등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있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곳에서는 현재 우리가 묻는 것처럼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물을 수 없다. 날이 어두워졌다거나 밤이 깊었다거나 날이 밝아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와 달에 따라 낮밤의 밝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몸담고 있는 삶의 세계 안에서 질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진행 과정, 낮밤의 변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애 주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다.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시간 체험이 다르고 따라서 시간 개념도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전제된 다음에야 출현하였다. 질문은 공동의 삶의 세계, 공동의 삶의 형식을 일단 전제로 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없이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는 질문

을 할 수가 없었듯이 질문은 그것이 출현할 수 배경과 출처와 연유를 가지고 있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만일 질문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직 이성에만 근거해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질문하는 사람은 오직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며 상상력을 따라 수많은 것을 머리 속에 그려보고 추론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이것들이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굳이 르네 지라르를 인용할 필요 없이 사람의 욕망은 ‘모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므로 질문도 순전히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숙고해갈 때 반드시 이성만을 유일한 원천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교회 전통이 ‘계시’라고 부른 것들을 물어가고 생각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명백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하자면 적극적으로 ‘계시’에 의존하여 질문을 하고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일컬어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불렀다. 계시 가운데는 예언도 있고, 꿈도 있고, 이른바 ‘일반계시’도 있고, 신비적 경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인들이 공통으로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계시'는 역시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 들고 묵고, 생각하고, 따져 보고, 다시 물어보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세 가지 질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물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요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특별히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인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한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들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통과 전통을 가능케 한 사건, 그것들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성경, 오랜 세월과 시간동안 동일한 물음을 묻고 생각해 온 역사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질문을 던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시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그럼에도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물음을 던지게 하는 삶의 상

황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앞의 논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속한 세계에 몸 담고 있는 구체적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물음은 앞에서 말한 여러 근거와 출처를 자원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항상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 삶의 물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 질문을 하게 되는 현재 우리의 삶의 정황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상황인가? 나는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 질문들을 던지는 까닭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의 용근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관의 문제가, 세계관의 질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당산동 두레교회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글 오세택 두레교회 담임목사

최근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가톨릭과 불교는 성장하는데, 개신교 교회는 매년 약 5백 개씩 줄어, 한때 6만개를 자랑하던 개신교 교회가 5만개로 줄었다. 그 중에 4만개 가까운 교회가 백 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개척한지 10년이 지나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 개척교회의 반이 넘는다. 이러한 어두운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운동을 통해 새로운 바람 일으키고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들을 소개한다.

두레교회와 기독교세계관

두레교회가 매주 발행하는 주보 첫 면에는 두레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레교회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조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에 속한 교회로서 주후 1986년 9월 28일에 설립되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없지만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이란 말 속에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기에 태생부터 이 비전을 갖고 있었다.

어느 듯 이십년을 넘긴 지금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 지역 교회가 어떤 운동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세대, 삼십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위로를 삼는다. 열매로 대답할 날을 기다리면서 부족하지만 그 동안 노력했던 바를 나누려고 한다.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교실'이다. 이 교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으로 어릴적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일상 속에서 갖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재도약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손쉬운 일상의 사실들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과정을 짜고 진행했다. 인체에 관한 성경적 이해와 관리,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돌봄, 친구관계와 가정, 돈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시골 학교나 캠프장을 빌려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관찰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 앞으로 교실의 구조를 정비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체험을 확대할 계획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 중에서 특히 근현대사 이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인 엄마 아빠들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부모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는 바 전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된다.

쉼터와 민들레 교실, 베베하우스

다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쉼터 운영이다. 실직 노숙자 25명을 교회 안에 있는 시설에서 숙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봉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시대를 읽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기독교 세계관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직 노숙자가 된다는 것을 개인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모순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률과 실질이 곧 선이다. 이를 갖지 못한 자들은 실패자로 본다. 그래서 실직노숙자들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악으로만 간주한다.

이는 아모스 시대 때 당시 지도자들이 가졌던 인식과 동일하며 역사상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기본인식이었다. 자본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억압과 탈취의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내 몰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보잉기 100 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아픔이나 느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라면 문제가 많은 영성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 운영과 하루 2만 5천 명이 죽어가는 이 문제에 지극히 미약하지만 '25,000저금통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돈을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양계사업을 돕고 있으며 일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지역에 아사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들레교실'과 '베베하우스'를 운영한다. '민들레교실'은 지역의 결손가정 아이들을 맡아 방과후 지도를 하는 것이며 '베베하우스'는 노숙여성들과 조손족 여성들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 성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함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기독교 기본 영성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고 있다.



나눔과 섬김의 예산편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이 영성을 세우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섬김에 두고 예산편성도 나눔과 섬김에 우선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역량을 낮아짐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에 50%이상 지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잘 맞추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갖지 않는 교회 형태는 없는지를 담론으로 삼고 토론 가운데 있다. 이런 정신으로 일 년에 두 차례 봉사주일로 정하고 흠어져서 섬김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건물에 메이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이 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은 기독교 비정부단체나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희년 함께'와 토지문제와 조세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가난한 농군학교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틈틈이 기독교 철학의 대가 강영안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있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와 협력하면서 기독교청년사회와 운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이 전무한 교회 노년 성도들을 위한 '두레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에는 첫 사업으로 농장가꾸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것이다. 생계의 염려가 없는 세상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독교 세계관 실천은 성경공부와 설교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 사명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보훈에 명명백백하게 이미 제시되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 오른편 뺨을 친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억지로 오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십리를 따라가는 나라, 속옷을 달랠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이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하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리라.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을 위하여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이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 보여도 오른뺨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사람이 하는 나라, 운동이 아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나라이며 운동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성경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도라는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기독교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주심이라는 기독교론의 핵심, 즉 구원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인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요원하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한다.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과 스토리도 이를 다루고 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는 성도의 바른 정체감을 가질 수 없고, 성도의 정체감이 없는 산상보훈의 삶을 살 수 없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국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99%가 예수 믿고 죄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백점 만점에 삼 십점 정도의 수준이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소에 성경을 도구적으로 읽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 그것이 심적 안정이 되었건 아니면 신체적 안락함이 되었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아니면 정신적, 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신앙이라는 자세를 넘어서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이해를 갖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중심성을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결되어야 할 일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사고를 새롭게 하기에 개인에게 자기초월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다. 구원이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이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옛 자아의 모든 죄악을 씻기는 일이며, 또한 그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애적인 옛 사람의 결과인 죄악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도말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자기애적으로만 살 수 있도록 상실된 옛 사람까지 죽여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거름나게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심은 옛 사람의 실존을 좇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후5:14-17)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다.(고전10:31-33) 그러므로 구원이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중심, 자기애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으로 존재론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누룩이 가루 서 말을 보이지 않게 서서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서서히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원 동치의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자아상이 시작된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존재론적인 응답이 기독교 세계를 펼쳐게 되었다. 그 기독교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이런 운동과 역사를 꿈꾸며 기도해 본다.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다.



오세택 목사
 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이며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구제역이 남긴 것들

가축사업에 새로운 관리 기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글 유정칠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사상초유의 구제역 대재앙

요즘 구제역으로 수많은 소와 돼지가 살 처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와 돼지고기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우유 공급 부족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점은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피해이다. 벌써 일부 매몰지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토양이나 물 오염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상수원 관리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먼저 상수도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어떤 매몰지에서는 가축을 살 처분할 때 내장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급히 생매장하는 바람에, 내장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대량 방출되어 그만 생매장한 가축의 몸통 등 사체 일부가 토양 밖으로 터져 나오는 사고도 보고되고 있다. 만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주로 먹고 사는 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매장한 사체 일부가 드러나게 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야생동물들에게 여러 질병들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겨울철새들은 2월말에서 3월이 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번식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연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독수리가 뱀새를 말고 찾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질병이나 2차 환경 피해보다 필자가 더 우려하는 것은 구제역을 관리하면서 보여준 우리사회의 야만적인 폭력성에 대한 것이다. 가축들을 살 처분한 후에 매장하지 않고, 살아있는 가축들을 강제적으로 큰 웅덩이에 몰아넣고 흙으로 덮는 경우와 포크레인으로 수십 마리의 가축을 무차별로 찢러 죽이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폭력성이 여과 없이 뉴스에 방영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구제역에 대한 이해

구제역¹⁾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이다. 주로 소·돼지·양·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해 국제교역 상 경제피해가 매우 커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제역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Picornaviridae Aphthovirus)로 작은 RNA 바이러스이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추위에 매우 강해 냉장 및 냉동 조건하에서도 오랫동안 보존되지만 열에는 약해 50°C 이상에서는 활성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여름에 발생하는 것보다 겨울에 발생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된다. 게다가 혹한기에는 방역호스가 얼어붙는 등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파동이 큰 것은 겨울철에 발생하여 바이러스의 활성이 매우 높아 확산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약 14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5일 정도로 매우 빠르다. 급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18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단 구제역에 걸리면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그리고 젖꼭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며, 거품이 많은 침을 흘리고 식욕이 감퇴되어 잘 먹지 않고 잘 일어나서도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치사율은 개체의 면역력에 따라 다르나 대략 5~55%에 이른다.

구제역의 역사는 매우 길다. 독일의 생물학자 프리드리히 뢰플러(Friedrich Loeffler)가 1897년 구제역의 병원체가 바이러스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그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을 필터에 걸러도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아 질병의 전파력이 매우 높고 치유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과 2002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고 2010년에는 1월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2010년 말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다.

구제역이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구제역의 병원체가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양한 타입(type)으로 변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인간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의 어떤 타입이 돼지나 다른 동물에게 먼저 전염된 후, 다시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때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질병에 대한 연구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왜 살 처분하고 매장하는가?

질문 1)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의 치사율이 약 5~55%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소와 돼지를 모두 살 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구제역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항생제나 다른 약으로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 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이 병은 감염된 가축의 입과 발굽에 생긴 물집(수포)에서 나온 액체나 침, 젖뿐만



1) 구제역(口蹄疫, 학명: Aphthae epizooticae): 영명은 foot-and-mouth disease(FMD)이다. 가축의 구제역과 인간의 수족구병(手足口病, 영어: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은 모두 같은 피코르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이다. 구제역이나 수족구병 모두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시절 많이 감염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pH 6.0이하 또는 9.0이상 조건에서 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및 0.2% 구연산 등이 소독제로 쓰인다.



아니라 감염동물에 오염된 축산물이나 분변 등과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공기 중으로도 전파되는 등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매물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혹 살아남더라도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상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젖소의 경우 젖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해 인근 농장의 가축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산 예방 차원에서 매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2) 구제역에 감염된 소나 돼지를 먹어도 사람에게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먹지 않고 모두 살 처분하여 매장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구제역에 감염된 소나 돼지를 먹거나 우유를 마셔도 인간이 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제역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고온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를 마시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감염된 지역의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 밖에 있는 도축장으로 운반해야하고, 도축하고 가공하여 유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불리 오염된 지역의 가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3) 왜 먼저 백신을 사용하여 전염병을 예방하지 않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 처분부터 시작하여 관리하다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백신을 사용하는가?

최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특히 한우 육종개량사업과 칩소²⁾ 등 멸종위기에 있는 토종가축의 혈통보존 등을 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접종도 끝냈던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정부 당국을 긴장시켰다.

2) 칩소: 갈색 바탕에 칠팀굴 같은 검은 줄무늬가 있는 소. 동요 '열록 송아지'의 소재이다. 황소나 흑소에 비해 수가 적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병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3~4주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먼저 살 처분을 하여 매장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해도 모든 개체에서 100% 항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 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항체 형성율은 개체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접종 후 7일째에는 평균 76.7%이며, 12일째는 평균 85.7%로 알려져 있다. 접종방법은 1차 백신 접종 후 한 달 후에 보강 접종을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접종을 하여야 하므로 백신 예방법으로 구제역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백신 사용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하여 어느 회사나 다 백신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안정한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구제역을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항원을 비축하고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점도 백신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혈청형(아형)³⁾이 있고 계속 새로운 혈청형이 생성된다. 우리 인간의 독감백신도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형에 따라 이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 예방주사를 맞듯이, 구제역의 백신도 혈청형이 다른 백신은 효능이 없고 혈청형이 다른 백신은 효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혈청형이 맞는 백신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도 백신으로 구제역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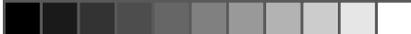
구제역 시대에 맞는 가축사육법과 바뀌어야 할 우리의 태도

구제역이 한창이었던 1월 중순, EBS 하나뿐인 지구 <한반도 사상초유의 가축 재앙, 구제역 (2011년 1월 20일 방영)> 제작팀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에 취약한 한국형 축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구제역이 방목형 국가보다는 사육형 국가에서 일어날 때 더 피해가 큰 이유? 그리고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상 초유의 구제역 대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이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의 축산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방법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가축을 키우기에는 부적당한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보니 가축분뇨로 사육장이 매우 불결하여 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와 강한 소독제 등을 너무 남용했었다. 또한 너무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보니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받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욱 많은 약품들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서 가축들이 사육되어 왔다. 이러한 축산생산과정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축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사료를 먹어야 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구제역 등의 질병에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행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부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 인

3) 구제역 병원체인 <Picornaviridae Aphthovirus>은 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7개의 혈청형(A, O, C, Asia-1, SAT-1, SAT-2, SAT-3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O형이 가장 흔하다. 이들 주요 혈청형들은 다시 80여 가지의 아형으로 나뉜다. 혈청형이 맞는 백신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항원은 현재 영국에 있는 Meril사에 보관해 놓고 있으며 필요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증식품(HACCP)에 동물의 복지의 사항을 넣어서 축산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축할 가축을 검열할 때 다리가 건강한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가축의 도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가축사육현장에서 가축들이 잘못 사육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다. 가축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병에 걸렸거나, 불결한 바닥에서 키워졌거나, 먹이에 곡물이 너무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였거나, 다리에 고사가 있거나, 동물들을 거칠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가축의 도축을 일절 허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축산이 크게 현대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축장은 관리 감독할 때 가축들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리항목도 넣어 관리하면 우리 사회의 폭력성도 크게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생매장 과정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구덩이에 밀어넣어 묻거나, 포크레인으로 무차별로 여러 번 찢러 죽이는 참혹한 상황은 분명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축을 도축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1. 첫 도축 시도에서 가축이 정신을 잃거나 죽는 확률이 95%가 넘어야 하고,
2. 도축장에 들어오는 통로나 결박당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축이 소리를 지르는 확률이 3%를 넘지 않게 단번에 죽여야 하며,
3. 도축장의 바닥이 미끄러워 가축이 도축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1%가 넘어서는 안 되며,
4. 가축에게 공포를 주는 전기봉 사용이 너무 빈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도축장에 경고가 내려지고, 경고가 누적되면 HACCP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 방역의 일환으로 가축들에게 백신을 맞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가축을 따라다니며 주사기를 마구 찔러대어 가축들에게 너무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놀란 가축의 공격적 행동으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축에게 주사를 맞힐 때 동물행동학 이론을 적용하여 가축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가축이 통로를 지나게 유도하는데 이 때 빛이 잘 드는 넓은 곳에서 빛이 어두운 좁은 통로로 물면 가축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히기 힘들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로 바깥쪽보다 안쪽이 좀 더 밝게 환경을 조성하되, 너무 빛이 직접적으로 가축에게 비치면 그 또한 싫어하므로 통로에는 밝은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가축이 큰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로로 이동하게 되고, 천천히 이동하는 가축에게 주사를 맞히면 가축이 주사를 맞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놀라지 않는다.

성경(창 1:28)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로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축들을 너무 잔인하게 다루거나 산 채로 생매장하는 일은 분명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길러지지만, 가축들이 건강하게 길러지고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 이 글은 2월 28일 경희대학교 <대학원보>에 게재된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원문보기를 원하시면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NEW BOOK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초등학생을 위한 <창조과학시리즈>



어린이를 위한 동물학 1

다섯째 날에 창조된 날아다니는 동물

Exploring Creation With zoology 1: Flying Creatures of the Fifth Day

지니K, 풀브라이트 지음 | 장정선 옮김 | 정가 25,000원

구형규(개웅초) 정수현(경동초) 이진희(신림초)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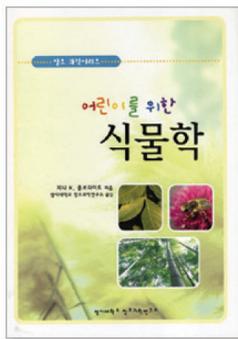
'동물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동물 분류법과 역동적인 비행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세계, 종류에 따른 새들의 독특한 특징, 새들의 특이한 행동 양식 순서로 이어집니다. 박쥐와 공룡의 세계를 살펴보고 곤충들의 특징 및 일대기를 공부한다. 샬롯 메이슨 교육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단원마다 학생들은 노트 정리를 하며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단원마다 주어진 과제물을 풀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운 내용을 반복하여 익히게 됩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운 창조의 세계를 공부하며 저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될 것입니다.

▶ 김영길 총장 / 한동대

이 책의 지침을 따라 과학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면 이 배움의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우며 즐거워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는 부모들이라면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 김준교수 / 고려대 생명공학부

이 책은 학생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명현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결과를 배워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면서도 매우 깊이 있게 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식물학 · Exploring Creation with Botany

지니K, 풀브라이트 지음 · 명지대 창조과학연구소 옮김 · 정가 18,000원

창조과학론의 입장에서 쓴 어린이 식물학 책.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권에 구성되어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추어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엮여졌다. 식물학의 개념 및 식물 분류 과정에 관한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씨앗의 성장과정, 식물의 생식과정, 양분 생성 방법,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법, 흡수된 물과 영양분이 식물의 다른 조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흡수물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조성봉 박사의 글(2011년 2호)에 대한 반론

신앙적 관점에서 본 공정과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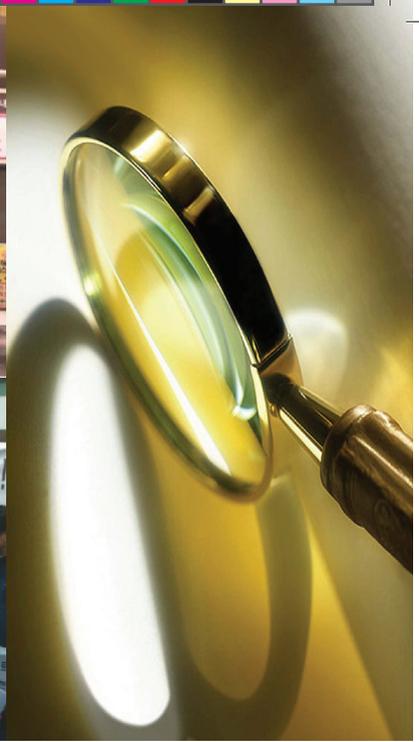
글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성봉 박사께서 최근 롯데 마트의 치킨사업 분야 진출의 문제점을 주제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과 상생에 관한 제 글에 전문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 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은 세속적 관점만이 아닌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때로는 두 가지 관점 간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정과 상생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와 제도적 관행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박사께서 제 견해에 대해 반박하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정적인 주장을 하셔서 부득이 반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조박사께서는 저의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과 소비자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진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적 비약과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박사께서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규모에 의해 구분 짓는 자체가 무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호소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논리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적용하자면 “아미쉬 마을의 기독교들처럼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선 왜 제 견해가 반시장적이며 반문명적이라고 결론을 맺으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박사의 주장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분을 가지고 상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명쾌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책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법적 근거와 사회적 관행에 의거하여 구분해 왔는데 이 자체를 무의미한 것이라고 부정한다면 대·중소기업간 관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불가능하며 더욱이 불공정이나 상생 논의 자체가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롯데 마트가 대기업이고 치킨가게가 영세 자영업자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농협 하나



대기업이 기금적이면 축적된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로마트, 서울우유,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언급하면서 영역 구분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경제와 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시장경제의 기반위에서 가능했고, 반시장적 이념에 사로 잡혀있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의 규칙이 작동해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박사께서 주장한 효율성 이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서 '강압적' 가격인하 문제에 대해 '강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환율, 유가, 경기변동 등 외부 압박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는 이미 보편적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나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노무현 정부 때는 '상생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3자가 보아도 정당한 시장거래라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통근 치킨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는 주장을 하면서 폴라로이드와 제록스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또한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회사는 기기를 저가로 판매하고 소모용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장기적 전체 이익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쓴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핸드폰을 저가로 공급하고 통화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전략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충분



한 효용가치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영세 자영업자와 이 해 갈등을 일으키는 마케팅 행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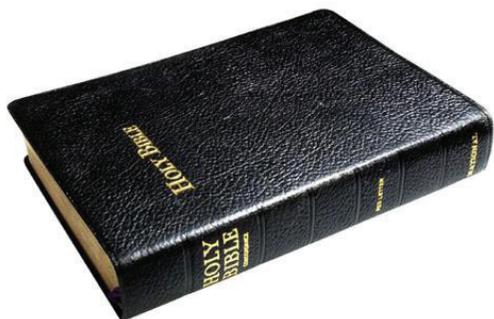
조박사께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이 만든 과자가 이미 재래식 과자점과 빵집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도 중소기업이나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장도 전후 연관성이 없는 무리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소가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형 제철소가 없었고 현대중공업 이전에는 대형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기업의 설립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였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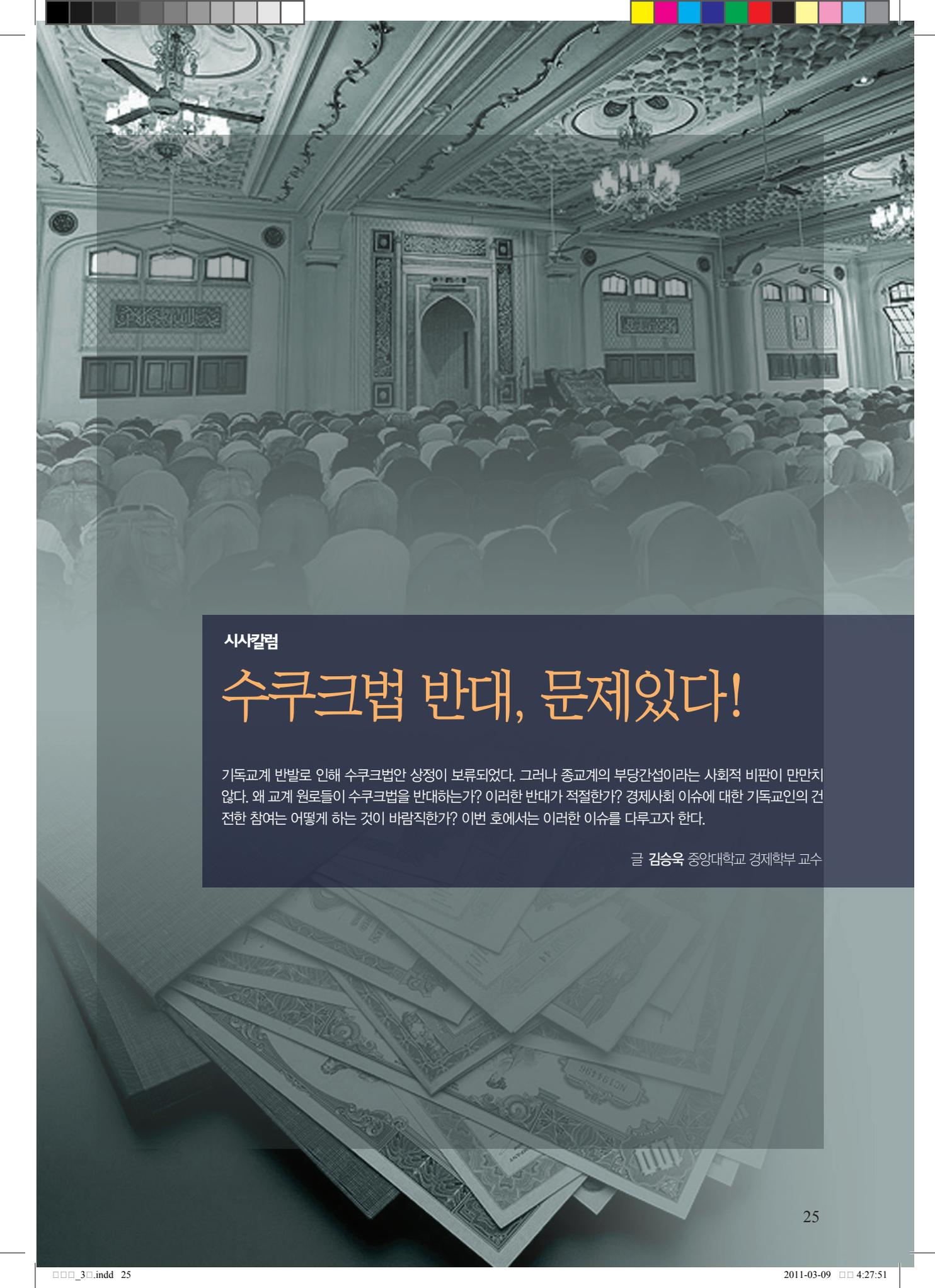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견인차이고 대학졸업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중공업이 설립됨으로써 수많은 연관 중소기업이 만들어졌고 사회전체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가급적이면 축적된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오늘날 대기업은 사회적 이미지나 명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공헌활동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보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준도 아닌 자영업자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해서 실익도 없으며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글의 핵심입니다. 이를 반시장적인 사고나 반문명적인 주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크리스천들이 사회이슈에 대해 올바른 추론 역량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과 관련한 기존 원고를 보시려면 좌측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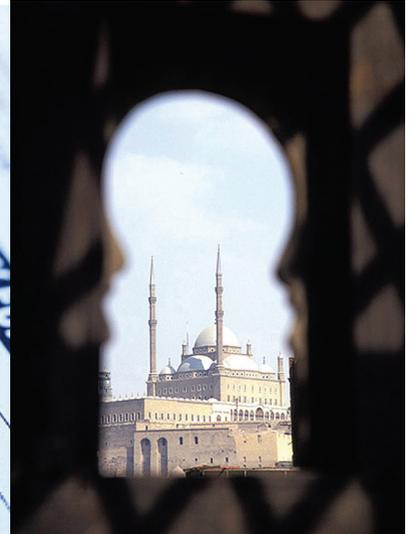


시사칼럼

수쿠크법 반대, 문제있다!

기독교계 반발로 인해 수쿠크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부당간섭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 왜 교계 원로들이 수쿠크법을 반대하는가? 이러한 반대가 적절한가?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의 건전한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글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수쿠크법 준비 배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9월에 이슬람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 등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슬람금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수쿠크법)을 마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하려 했다.

우리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풍부한 자금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머니가 쌓여 중동자금이 매년 15%씩 성장해 올해 전체 시장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풍부한 자금 덕분에 이슬람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회사채에 비해 0.1~0.2% 포인트 정도 낮다.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낙후되어 중동자본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의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금융허브가 되려고 하며, 중국과 일본도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유럽지역에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등 이슬람자금 유치는 새로운 국제금융트렌드가 됐다. 우리 정부도 2008년에 이슬람 중앙은행들의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대우, 신한, 우리,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증권사들도 3~4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와 제휴를 맺고 이슬람 자본 유치를 준비했다.

두 번째 이유는 외화조달 통로의 다변화를 위해서이다. 지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 외화유동성의 취약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자금 조달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슬람 금융이 장기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규모는 날로 커지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는 헤지펀드 공격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다른 외화 표시채권과 달리 반드시 실물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박스 설명 참고) 급격한 유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유리하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화학기업인 사빅(Sabir)은 20년 만기 수쿠크를 발행했다.

마지막 이유는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쿠크 발행

을 통해 이슬람계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중동지역 플랜트 등 건설수주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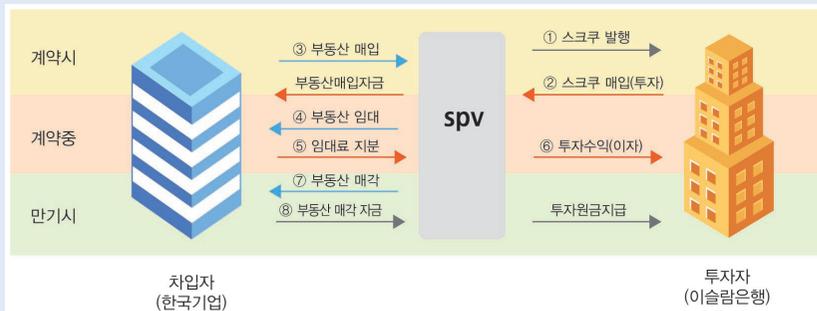
왜 세금을 면제하는가?

논란의 중심은 세금면제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받아야 한다. 샤리아에서는 이자를 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본거래에는 일종의 편법이 사용된다.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슬람채권이 수쿠크다. 이슬람율법 샤리아에 의하면 이자는 지급할 수 없지만 실물자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지불할 수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쿠크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할 수는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세워 투자자와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이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보유자들에게 돌려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수쿠크의 원리는 박스 기사 참고). 따라서 수쿠크는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채권이지만, 실물 자산투자로 얻은 수익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펀드'와 비슷하다. 따라서 다른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이므로 세금이 없는데, 아래 박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

수쿠크 발행 원리

수쿠크 발행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차입자는 한국기업, 투자자는 이슬람은행이라고 하자. 한국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슬람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간단하지만,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특수목적회사(SPV)를 둔다. SPV는 ①스쿠크를 발행하고 이슬람은행으로부터 ②투자를 유치한다. 이 돈으로 차입자인 한국기업으로부터 ③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④임대를 한다. 계약기간 중에 SPV는 한국기업에게 ⑤임대료를 받아, 이슬람투자자에게 ⑥수익의 형태로 지급한다. 만기일이 되면 이 부동산을 ⑦한국기업에게 다시 팔고, 받은 ⑧자금을 가지고 스쿠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돈의 흐름만 있으면 되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라는 부차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대신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산 매입시 취득·등록세가 붙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된다. 이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면 수쿠크는 사실상 일반 해외채권보다 4% 정도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는 이자소득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맞춰 이자 대신 배당을 주는 형태로 변형됐을 뿐 다른 외화포시채권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조세특례개정안에 수쿠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채권이 받지 못하는 면세 혜택을 주어 역차별을 고치자는 취지이다.

정치권에서 반대 이유

수쿠크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에 앞장 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 자금을 대해서만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이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종교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법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플랜트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슬람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려고 과세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쿠크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단 3곳뿐이고, 그것도 일부 중복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면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기독교계의 개입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반대는 기독교의 반대를 의식한 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계의 양대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협의회(KNCC)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길자연 한기총 회장과 산하 교계 대표 7명은 한나라당사를 찾아가 이슬람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안상수 대표는 교계의 뜻을 담당 상임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KNCC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정세균,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는 축사 중에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교계 원로들의 수쿠크면세에 대한 반대 명분은 수익금의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쿠크 발행에 따른 수입의 2.5%는 구제를 위한 구빈세(求貧稅)인 ‘자카트(Zakat)’란 명목으로 자선단체에 전달된다. 그런데 송금기록은 바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 수쿠크 발행과 운용을 맡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돼 있는데, 그 내역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테러자금줄이라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테러보다는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자금을 이슬람화를 위한 ‘금융지하드’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영국이 이슬람 금융 도입 뒤에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것을 근거지로 과격세력들이 테러가 따랐으며, 프랑스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 후 무슬림청년들의 시위로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마치는 글

지금까지 수쿠크법 배경과 반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반대 이유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특히 기독교계가 경제문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수쿠크는 199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시작되었고,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수쿠크 발행의 68%를 차지한다. 그리고 세계로 확대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영국은 2003년, 싱가포르는 2005년에 수쿠크 거래를 허용했고, 미국도 2009년 11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프랑스도 시행령을 통해 면세 조치를 했으며, 일본 역시 올해 면세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수쿠크 면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에서도 인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를 특별로 보는 것은 수쿠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테러와 전쟁을 치르는 미국은 물론이고 가장 반이슬람적인 유대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마저 수쿠크 발행으로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인정된다. 수쿠크의 장기선호성이나, 우리나라의 외화도입 다변화 전략 등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이슬람을 포함한 해외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이슬람 포교 확산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유럽의 경우 해외근로자의 70~80%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 포비아(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슬람은 10%에 불과하지만, 급속하게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세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수쿠크법 반대운동이 효과적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신정일치인 이슬람국가들이 포교를 위해서 돈을 보내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구빈제인 자카트는 십일조와 비슷해서, 이슬람교인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수쿠크에만 의무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석유 수입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이 자카트라는데 이름으로 기부된다. 따라서 자카트를 막으려면 원유수입도 하지 말고, 중동 건설진출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에서 이슬람권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이르는 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카트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정규 단체에만 전달되고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에 악용될 소지는 적다. 사실 이것이 테러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면 테러에 민감한 미국이나 영국에서 수쿠크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수쿠크법에 대한 일부 교계 원로들의 대응을 보면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 표를 의지해서 정부를 협박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방동섭목사의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라는 책이 있다. 기독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힘이나 돈으로 밀어붙이는 십자군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금융계 종사자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왜 사전에 그들의 자문을 받지 않았는가 의문이 든다.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대에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한 기존 원고를 보시려면 좌측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부자 된 한국이 행복을 누리는 길

최근 한 언론기관이 세계 10개국 5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지도(地圖)'를 조사한 결과, 세계 2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은(49.3%) 나라는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다 (조선일보).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도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최빈국인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디너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평하였다.

글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부자는 행복하다?

대부분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나 자신'(3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많이 지명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56.1%)·베트남(46.0%)·말레이시아(40.1%) 등 동남아 사람들이었다. 한국인 중에도 3분의 1은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인들은 부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부유해진 지금도 '물욕(物慾)으로 인한 피로감', '주변국의 위협',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에 지쳐 있다고 한다고 하니 모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행복과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2005년 130개국 13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중간인 5.5점보다 약간 낮았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 균형'은 130개국 중에서 116위에 불과했다.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최빈국인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디너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평하였다.

디너 교수는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돈 버는 데 신경 쓰느라 가족관계나 개인의 취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맨 바닥에서 기적처럼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 이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가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로 성장하였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교 대상국 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자 하며 경제발전의 모범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행복을 구가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 세

계 어느 국가에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풍성하게 살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우리 국민소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집 할부금을 갚는데 대부분이 들어가고 세금이 높아 실제 가정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돈을 제법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가?

왜, 아직도 물질인가?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에는 별 걱정이 없었다. 지금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을 할 것이고, 월급은 계속 올라갈 터이니, 중년이 되면 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낙관적 생각에 경고를 받은 것이 90년대 말 외환 위기였다. 기업은 외채를 차입해서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써 허세를 부렸고, 국민들도 카드빚을 내어 과소비를 했다. 수출이 되지 않자 외채를 들어왔고, 나중에는 급전까지 끌어다 메웠다. 그러다 보니 외채 규모가 2년마다 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기에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받고, 경제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환율 조정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돈으로 해결한 경제 위기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기업은 과감한 구조 조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자와 노숙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는 위축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실직하고 가계가 파탄되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깨닫게 되었다. 믿었던 직장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나타났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맘몬이즘, 배금주의, 향락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또다시 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다. 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벤처 투자 열풍에 덧붙여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선 거의 두 배씩 올랐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극하였고, 지방이나 투기과열 지구 이외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불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돈 번다고 하자 나도 뭔가 해보자, 뭐든지 한몫을 잡아야 한다는 식이 된 것이다. 이러한 조급함, 불안함이 부에 대한 열망, 부자들을 모방하는 과소비를 부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맘몬이즘, 배금주의, 향락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또다시 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다.

20:80의 사회

앞으로는 '20:80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소득 분포가 항아리 형이었다. 즉 위가 부유층, 아래가 빈곤층, 가운데가 중산층으로 가운데가 넓게 퍼져 있는 항아리형 모양이다. 중산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래시계'형으로 바뀐다고 한다. 중산층이 잘록해지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늘어나 위 아래로 양극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중산층은 줄어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미래학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빈곤층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원래 모래시계는 위와 아래의 크기가 비슷한 50:50이지만, 앞으로의 소득분포는 위가 20, 아래가 80이 되어 빈곤층이 80%를 차지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거나 중산층을 지향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 앞으로가 더 위험한 것이다.

“행복이 물질적 소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평안이다. 재물은 일시적인 편안함(comfortable)을 주지만, 평안(peace)은 없다.”

돈의 유용성과 위험을 바로 알아야

이제 돈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 돈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돈의 유익과 위험성,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활용하여야 한다. 현대인의 가장 큰 터부가 돈과 성이라고 한다. 성이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을 숨기고 쉬쉬하고 터부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곡되고 부분적인 정보가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음담패설, 돈을 한탕 해먹은 이야기 등이 방송매체에 흔히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다 보니 성에 대해서도 굴절된 모습이 나타나고, 돈에 대해서도 한탕주의, 과소비 등의 왜곡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와 투자 생활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배워야 한다. 돈에 무지한 돈맹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길

경제학에서는 “행복 = 소비/욕망”, 즉 소비수준을 욕망으로 나눈 값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즉, 많은 소비 또는 고급 소비를 하면 물질적 행복이 증가하고, 분모인 욕망이 낮으면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정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수준을 무한정 늘일 수는 없다. 또한 소비를 마냥 늘인다고 하여 행복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배가 고플 때 한 그릇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두 그릇을 먹으면 더 행복하지만 한 그릇 때보다는 적게 는다.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나 행복도가 감소하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계 효용(한 그릇 먹을 때마다 늘어나는 행복의 정도)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행복도를 높이는 다른 방법은 분모인 우리의 욕망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에 매여 있지 않은지 늘 민감해야 한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딤후 6:8)고 말씀한다. 적은 물질이라도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딤후 6:6).

그런데 다시 주목할 것은 행복이 물질적 소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물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벗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다. 특히 불안감에서 벗어나 행복의 상태에 이르려면 마음이 여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는 남에게 베풀 때 얻을 수 있게 된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평안이다. 재물은 일시적인 편안함(comfortable)을 주지만, 평안(peace)은 없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미치는 영원한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 이 글은 좌측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김명엽의 찬송교실 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언제나 **마음**으로 불러야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총 408)

A. B. Simpson, 1891
부흥 찬송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눅 5:4)

LAUNCH OUT: 11.8.11.8. REF.
R. K. Carter, 1891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 다
2. 왜 너 인생은 언제 나 거기서 저 큰 바다물결보 고
3.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려다 가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바다향 해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 보 라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 나
찰씩 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마 음 약 하여 못 가 네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 라 망망한 바다 로

후렴
언 덕 을 떠나 서 창 파 에 배 띄 워
언 덕 을 떠나 서

내 주 예 수 은혜 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 라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은혜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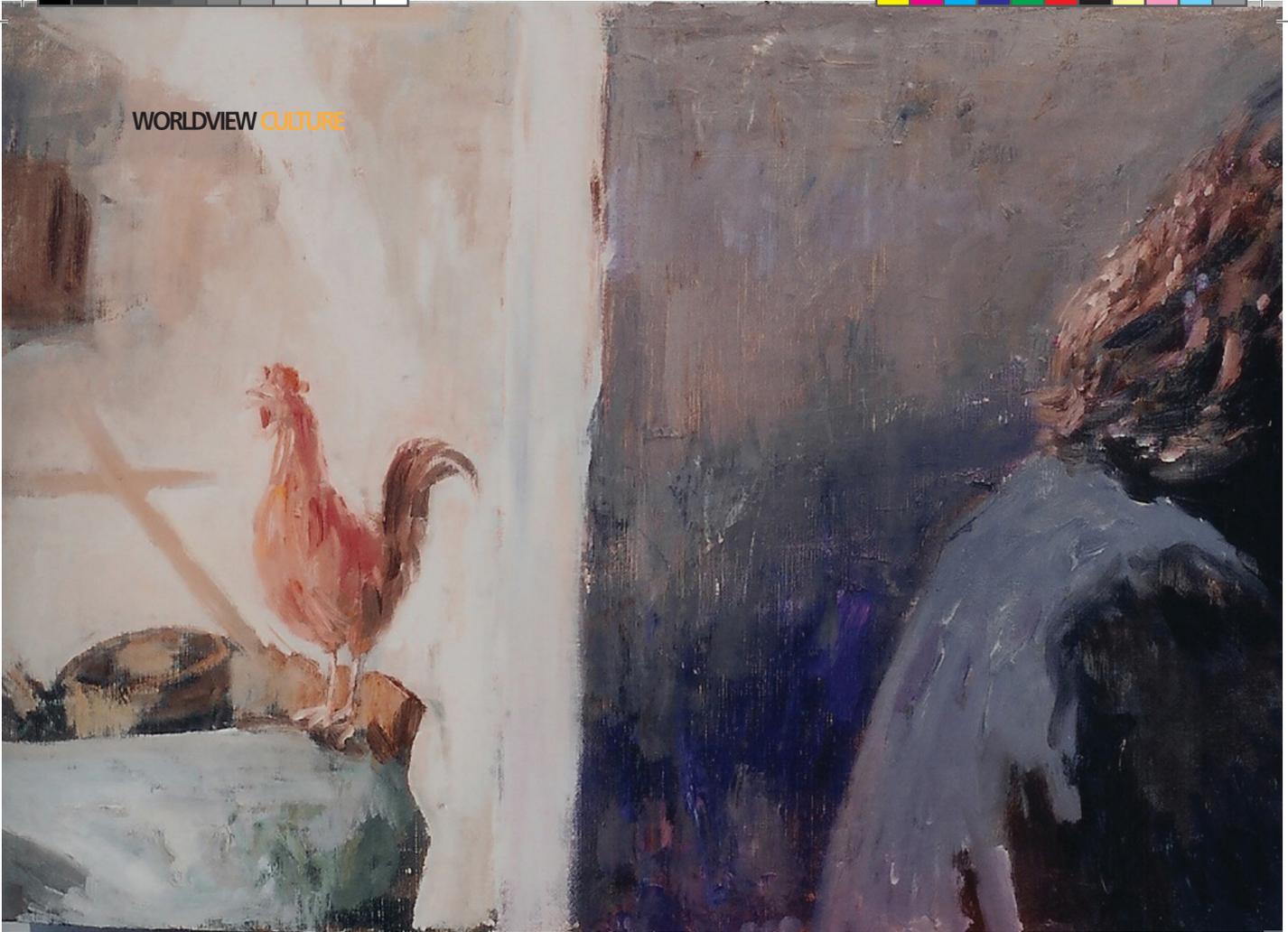
사도바울은 그가 쓴 여러 편지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당시 교회음악을 단어 한 자도 다르지 않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찬송 학자들에 의하면 시(psalm)란 구약의 시편으로 오늘날 찬양대의 수준 높은 찬양곡을 말하며, 찬송(hymn)은 말 그대로 회중찬송을, 그리고 신령한 노래(spiritual song)는 지금의 복음성가나 CCM, 경배와 찬양 같은 사적인 노래를 말한다. 그런데 그는 이 같은 노래들을 부를 때 '마음으로'(in your hearts)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송을 부를 적마다 찬송 시의 표현이 곡조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가사의 단어가 가지는 뜻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어화(語畵, word painting)라고 하는데, 노래하면서 그 경치를 상상해보는 것도 한층 재미있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다 보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절로 생겨날 것이다. 악보 경치를 한번 보라. 음표의 높낮이를 따라 곡선을 그려보면 넘실거리는 웨이브를 느끼게 되지 않는가? 높은 음은 물결이 높고 낮은 음은 물결이 낮고... 1절에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보라” 시던 음성도 들려오는 듯 하고, 2절과 3절에선 파도치는 바다와도 같이 인생살이에서의 크고 작은 파고(波高)를 보게도 되며, 4절에선 그 파고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즐기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듯하다. 앞에 보이는 파도만을 보고 그 바다 밑의 무궁무진한 고기떼를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우리를 향해 은혜의 “깊은 데로 가라” 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듯 음표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상징이 들어있는데, 1-8마디와 13-16마디의 높낮이가 파고의 곡선이었던 것이 후렴의 “언덕을 떠나서”에서 언덕은 정말 높은 언덕처럼 음이 높고, “창파에 배 띄워”는 겁먹은 얼굴로 구경만 하던 언덕에서 내려와 배를 띄우듯 음이 낮다.

이 찬송은 캐나다계 미국인인 심슨(Albert Benjamin Simpson, 1848-1919) 목사님이 작사하였는데, 캐나다 토론토의 약스 대학을 나온 장로교 목사님으로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다.

오른 쪽 위에 보면 영문 고딕체로 LAUNCH OUT라고 쓰여 있는데, 배를 물에 띄운다는 뜻으로 이 찬송의 곡명(tune name)이다. 이 곡을 지은 카터(Russell Kelso Carter, 1849-1926) 목사님은 다재다능한 분으로 음악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많은 찬송가를 지어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이 찬송가 위편에 보면 작사자와 작곡자 이름 옆에 1891년이라고 작사 작곡 연대가 표기되어 있는데, 심슨 목사님과 카터 목사님이 공동으로 편찬한 ‘성도의 생활 찬송가’(Hymns of the Christian Life)에 발표된 해이다.



손병화의 로고시즘(Logos-ism), 그 회화적 감동과 힘

말씀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다

글 오익석 조각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동 대학 MF 지도교수

화가 손병화는 말이 적다. 수년 전, 그의 화실에 몇몇 지인들이 모였을 때, 누가 주인공자를 알기 어려울 만큼 손님 의 한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 봄 그가 나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도 역시 그러했다. 오래전부터 그는 침묵의 힘을 터득하고 있는 것일까? 손병화는 말을 아끼는 대신 작업과 그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은 무겁고 진지하며 그 형식은 매우 독특하고 힘이 있다. 손병화의 그림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뭉클한 무엇이 치솟아 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실체를 글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손병화는 내게 어려운 작가였다. 그의 그림이 지닌 무게를 감당하기가 벅차고, 작업의 진지함이 빚어 놓은 작품의 두께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그의 그림을 대면한다. 큰 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가가 캔버스에 말씀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화면 속의 인물들 앞에서 오늘도 나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한 제자의 통곡, 손병화, 90×50cm, 유화

손병화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구시전 최우수상 및 특선,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의 미 특별전,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문예진흥원)
한·중·일 3국 미술교류전(대만), 국제Art Comet 전
한국기독교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한유회 회원

한 제자의 통곡

한 제자가 울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저 따라 울고 싶을 뿐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화면 밖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 듯 그는 중심에서 이탈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 얼굴과 주먹을 친 손, 그리고 거친 머리칼..., 작가는 인물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다. 카메라의 렌즈로 대상을 담겨온 것처럼 인물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화면에 부각 시켰다.

극명한 명도 대비를 통해 화면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빛과 어둠이 이웃하고 있다. 한편에서 닦이 울고 여명이 밝아 온다. 그러나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는 제자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다. 부인과 배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 통한의 눈물을 삼켜본 사람들이라면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제자의 등을 비추는 강한 빛이 있고, 그의 머리카락과 얼굴에 위로부터 비쳐지는 강한 빛의 흔적이 있다. 통회하는 그가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이 빛에서 확인한다. 그것은 어둠 속의 제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다.



죄사함, 손병화, 114×42cm, 유화, 2008

용서를 구하는 한 여인

서 있는 남자, 엎드린 여인, 멀리 둘러선 한 무리 사람들,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긴 화면에 많은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끄러운 죄가 무리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집단적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음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림 속의 여인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한다. 몸의 대부분을 화면 밖



으로 숨기고 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은 여인의 사정을 화가는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음인지도 모른다. 그 여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가 있다. 그가 옷자락 하단과 드러낸 발만을 화면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깊은 배려일 것이다. 지금 여인의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그에게 달려 있다. 위기의 순간이다.

이 긴박한 현장을 포착해 내는 작가의 시점은 거의 땅바닥에까지 낮아져 있다. 그 낮아진 위치에서 여인의 가늘고 긴 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 서 있는 이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뻗어진 여인의 손에서 간절한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손으로 인해 화면 전체에 긴장이 감돈다. 과연 그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멀리 원경에 자리하는 검푸른 빛깔의 건물은 권위적으로 보이며, 그 앞의 무리들은 이들에게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배경과 구별된 중심인물의 주위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의 기운은 땅에서 피어오른 것처럼 이들을 감싸며 번져간다. 이 자리로 여인을 끌고 온 어둠의 무리들이 힘을 잃고 희미하게 사라져 간다. 아웃포커싱 된 원경의 처리에서 여인에게 임할 용서와 해방, 그리고 자유가 넉넉히 감지된다.

나무에 달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있다. 그의 몸은 나무의 일부처럼 거칠다.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배우고 따르던 제자도, 용서 받은 여인도 그를 조롱하며 짐승처럼 학대한 무리도 청화색의 어두운 배경 속에 모두 파묻혀 있다. 고독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는 정말 버림을 받은 것인가?

화가는 세트장의 고공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장면을 내려다본다. 그곳은 초월자의 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 손병화, 110×60cm, 유화, 2008

전능자의 시점이다. 나무에 달린 그를 위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한 시선이 그림 속의 희망이다. 화가는 그 희망을 몇 줄기 빛의 흔적으로 화면에 담았다. 머리에 씌워진 관에서 몇 개의 가시가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그림 앞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어둠의 배경 속에 숨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화가가 안내하는 자리로 함께 올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아픔의 현장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구원과 희망의 표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감동의 그림이 던지는 질문

화가 손병화가 말씀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매우 다양하다. 땅바닥까지 몸을 낮추어서 대상을 보거나 하면, 때로는 고공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기도 한다. 그리고 부분을 클로즈 업 시켜서 전체 인물의 성격과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극적 상황의 연출을 통해 작가는 우리를 말씀 속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당신은 누구인가?

전체적으로 무겁고 거친 무채도의 그림이지만 중심인물 주위에는 예외 없이 생기를 주는 색채가 묻어나고 있다. 그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거나 위로부터 비추어 내린다. 그의 그림들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에 주목하는데 머물지 않고 늘 활기 희망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 희망의 빛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임하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감지한다. 이것이 손병화의 회화가 주는 감동이고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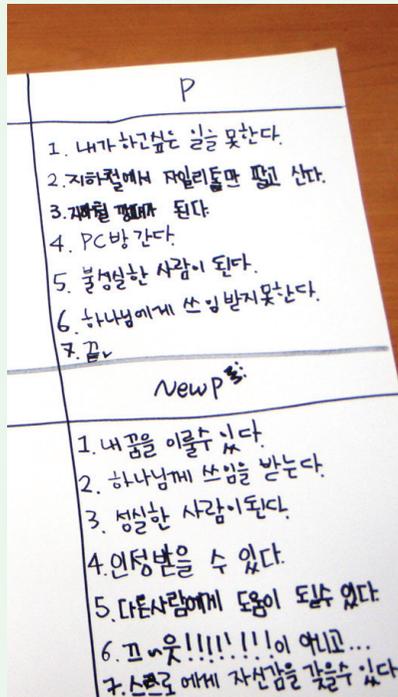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청소년생각캠프

글 유경상 CTC대표

CTC(크리스천 싱킹 센터) 청소년생각캠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시작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캠프는 방학과 놀토를 이용해 CTC 자체 운영 또는 교회 및 타기관과 네트워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생각캠프를 하기 전에는 생각하기 자체를 싫어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강의를 하자마자 자장기인줄 알고 조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캠프를 진행해 오면서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나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이 넘침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진실 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고 제가 성장해 가는 시간입니다. CTC 생각캠프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파워포인트, 이야기, 사진, 동영상, UCC 만들기, 토론 중심의 창의적 학습
- ▶ 기독교세계관 툴(tool)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코칭 프로그램
- ▶ 게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공부, 아이돌 등 삶과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현장 문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
-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명 및 비전문 작성
- ▶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는 라이프 플랜 세우기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캠프의 특징과 활동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기독교세계관의 원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캠프의 주요 프로그램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네이버에 “크리스천 싱킹 센터”를 검색하시면 활동사진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1. 오프닝

레크리에이션, 자기소개 하기, 미래 명함 만들기, 캠프 10계명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캠프를 준비합니다.

2.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생각의 법칙 TAP’

생각의 세 가지 원리인 TAP(Think, Action, Product)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TAP 툴(tool)을 통해 사용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도록 돕습니다.

3. TAP 콘테스트

TAP을 통해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가진 재능(그림, 노래, 춤, 연극 등)으로 표현해 봅니다.

4.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BIBLE TAP’

기독교세계관의 세 가지 원리인 God, Sin, Jesus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툴(BIBLE TAP)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5. 크리스천 싱킹 UCC 콘테스트

BIBLE TAP을 통해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UCC로 제작해 봅니다.

6. 기독교세계관으로 영화보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적용함으로써 문화 분별력을 갖도록 합니다.

7. 크리스천 라이프 & 클로징

캠프에 대한 전체 복습, 소감 나누기, 캠프 후에 실천할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세계관이나 기독교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능하면 생각이나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표현하여 청소년들이 용어로 인해 기독교세계관을 어려워하거나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생각의 중요성과 원리를 배우고, 기독교세계관의 세 가지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만든 사고툴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을 점검하고,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영화보기나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한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세계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생각캠프가 강사와 스태프가 먼저 즐겁고 학생도 더 즐거운 행복한 캠프가 되길 소망하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캠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CTC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캠핑 참가 후기

지금까지 나는 CCM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꿈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 꿈이 돈은 많이 벌 수 있나? 살아가기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며 꿈이 흐려질 때 마침 하나님이나 나를 생각캠프라는 곳에 오게 하셨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을 쓸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 꿈이 하나님이나 나한테 준 달란트로 영광 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로소 여기서 다시 나의 꿈을 찾은 것이다. 이 캠프는 다른 데와 다르게 활동을 하면서 하면서 몸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 생각을 통해 세상의 문제(죄)를 더 깊게 생각하게 하고, 해결자는 예수님이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감사 선생님(CTC 대표님)의 강의도 동영상도 보면서 하고, 적절한 예를 들어 주시면서 강의 시간이 재미있었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직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너무 좋다, 다 가족 같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말은 꼭!!! 기억날 것 같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와 또 "10분 쉬고 합시다!" 는 기억날 것 같다. 또 내 기억에 남을 캠프 중에 하나이다. 나중에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것이다. 집에 가기 싫다. ♪ ♪ ♪ 황지연

생각캠프를 오기 전에 세상에 많은 기준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의 직함을 불러 주어서 너무 좋았고, 좀 더 힘이 나서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의 관점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관점을 전달하여 별로 가치 없고 소멸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변화하는 곳에 내가 쓰이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게 되었다. 생각을 할 때 Bible TAP을 적용하여 예수님 어떤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서 이웃을 위하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고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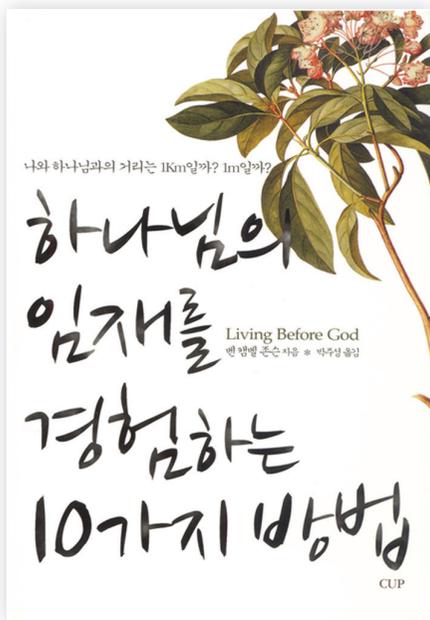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걸음을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출 뻔했지만 용기있게 한 걸음을 내딛어, 아니 사실은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을 호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맨 처음 이 캠프에 대해 들었을 때는 "오, 이런 캠프도 있구나" 하고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나 둘 할수록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AP, Bible TAP, 이바타, 꿈 등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 들어야 한다. 환경에 불만하지 말고 나의 생각들을 바꾸자" 등등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전까지 저의 주위에 일어나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은 모두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이 캠프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호



벤 컴벨 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 가지 방법

글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 CUP, 2010

벤 존슨(Ben Campbell Johnson, 1932~)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장로교 계통의 신학 기관 컬럼비아 신학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의 전도 및 교회 성장학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 도중에 그는 전공 분야를 기독교 영성학(Christian Spirituality)으로 바꾸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일상 생활의 영성 등 영성 전반에 관해 책을 썼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10 가지 항목으로 설명한 경건 서적이다. 이 10 가지는 (1)영적 수면, (2)경이로움, (3)렉티오 디비나, (4)사단의 기만, (5)하나님의 음성, (6)일상의 삶, (7)현재에 집중함, (8)내 안의 그리스도, (9)속박과 자유, (10)끝까지 신실하게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 가운데 좀 더 서평자의 주목을 끈 항목은 (3) (5) (6) (8)의 네 가지다. 이제 이 항목들을 한 가지씩 살피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을 그저 공부하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경건적 읽기(devotional reading)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4장에서 이런 식의 읽기를 이미 통상화된 용어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로 소개하면서, 여기에 4 단계의 활동 [렉티오(읽기, lectio) → 메디타티오(묵상, meditatio) → 오라티오(기도, oratio) → 컨템플라티오(관상, contemplatio)]이 연관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단계인 컨템플라티오는 관상(觀想)으로 번역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책에는 ‘경청’이라고 약간 빗나가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한글 사전에 보면 ‘관상’이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일; 마음이 사색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하며,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응시하는 기도의 경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가톨릭 교회 내 신비가들이 제안한 바 비시오 데이(visio Dei, vision of God)의 경험으로서, 개념(concepts)이나 표상(images)의 매개가 없이 하나님을 직관하는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관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건전한 형태의 렉티오 디비나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유형 - 일방적 언설(solitary speech), 대화적 언설(dialogical speech), 예언적 언설(prophetic speech), 전례적(典禮的) 언설(liturgical speech) -을 언급한다. ‘일방적 언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인데 비해 ‘대화적 언설’은 그리스도인과의 상호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안을 의미한다. ‘예언적 언설’은 소위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위기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때 주어진다. ‘전례적 언설’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저자는 ‘예언의 은사,’ ‘예언자’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로써 보통 초자연적 은사의 종지(終止)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장로교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흔적을 더 빈번히 발견하면 할수록, 심지어 그러한 어두운 순간들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최적의 계기임을 더 확연히 깨닫게 된다”

본 비평자에게 가장 의미 심장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일상 생활에서의 하나님 임재 - 요즈음은 보통 ‘일상 생활의 영성’(spirituality of everyday life)이라고 일컫는데 -를 다룬 6장의 내용이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에 비추어 보는 것과 관련하여 저자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비평자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을 당일에 벌어진 에피소드나 사건에 따라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각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한 요약과 묵상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덟 가지 항목의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함으로써 이 점을 부연해서 설명한다.

1. 이 날을 돌아볼 때, 사건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2. 내가 느낀 마음의 갈망은 무엇이었는가?
3. 오늘 삶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질문들이 생겨났는가?
4. 오늘 무슨 일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는가?
5. 삶의 신비감에 휩싸이게 만든 순간들이 있었는가?
6.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는가?
7.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도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고 느낀 순간들, 곧 카이로(kairos)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8.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즐겁고 영광스러운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고통, 당황, 환멸, 실수, 유혹, 절망, 두려움 등의 연속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흔적을 더 빈번히 발견하

면 할수록, 심지어 그러한 어두운 순간들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최적의 계기임을 더 확연히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8장에서 그리스도의 내주를 설명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어디’계신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후에는 ‘바로 앞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첫 단계 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images)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상 승배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세 번째 단계로서 이는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갖는 이점은 ‘바로 앞에’서와 같이 친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디’에 대한 저자의 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종착점은 드디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요 14:21-23에서 ‘임재의 약속’을, 골 1:25-27에서 ‘영광의 소망’을, 고후 6:16, 18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엡 3:16-17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다. 결국 하나님을 저 멀리에서도, 내 앞에서나 내 뒤에서도 찾지 말고, 바로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소원한 하나님으로보다는 오히려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비평자는 저자의 상기 설명에 찬사를 보내고 기꺼워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이견(異見)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본 비평자의 이해력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물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시 139:5)만큼은 부인하지 않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이 어구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게 느껴진다. 둘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unio systica)을 나타내는 구원 신앙의 핵심적 사안으로서 최상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경험을 왜 꼭 저자처럼 네 번째 단계로 겪어야 하는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이들도 있지 않은가?

셋째, 본 비평자는 하나님의 ‘어디’에 관한 묘사들을 영적 성숙의 단계와 연관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의식(religious consciousness)에 모두 필요한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소원한 하나님으로보다는 오히려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연합을 이루시고 함께 친밀성을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밀성의 각도에서 보면 물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꼭 친밀성의 결여를 뜻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함과 동시에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디”와 연관한 비평자의 의문과 비평은 결코 벤 존슨의 저술이나 그의 저술 방식에 대한 폄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그의 탐구 정신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그의 저술 내용이 피상적이고 초보적이었다면 비평자의 이런 비평 또한 전혀 부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저자는 미국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그러나 그의 저술 내용이 미국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을 자극하고 참고 거리를 제공하여 동시에 공감을 일으킨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을 진솔하고 담담한 필치로 나누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영적 갈급함이 이 작품을 통해 더욱 진지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인 벤 존슨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영적 여정의 스토리를 작성하도록 은연 중에 촉구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 개최안내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창의홀 및 인문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신앙과 학문이 이론적 접근을 벗어나 실제 각 분야에서 적용한 사례와 고민을 나누려는 기독교자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생 세션도 준비하였으며 발표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을 수여합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일반논문 발표도 환영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모집 분야: 기독교세계관, 교육, 문학, 철학, 경제, 경영, 자연과학, 문화예술, 상담심리

신청접수: 2011년 4월 23일까지

신청내용: 발표자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제목, 연락처

발표논문 원고제출: eothk@mju.ac.kr(김태항 총무),

gihakyun@daum.net(김승남 사무국장)

문의: 3272-4967, 754-8004

발표논문은 <신앙과 학문> 투고시 우대함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안내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학문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은 학회 사무국에서 상시 접수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 4회 발간되는 발행일에 맞춰 게재됩니다.

현재 16권 1호가 3월 31일에 발행될 예정이며 16권 2호의 투고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관심있는 학자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종강 및 수료식

손봉호 이사장, 이승규(합신대학원), 김승욱(중앙대), 강진구(고신대), 안종배(한세대) 교수와 실가지도 강사진(장유진PD, 유지은PD, 임춘택 박사)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료식에서 이지현(최우수상), 성민철, 공주빈(우수상) 학생이 성적우수상을 받았으며 김동욱 학생을 포함한 총 6명의 학생들이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헌신하여 주신 많은 강사진들과 후원자들에 감사드리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에게 무한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카데미 졸업생 모두가 미디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세계관 교육 지도자과정 안내

대상 :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고 코칭하기를 원하는 부모, 교사, 사역자 등

기간 : 3월 21일 - 4월 18일(5주 과정), 매주 월요일 저녁 7-10시

장소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미나실(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 르네상스빌 A동 402호)

후원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기독교대안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용

- 1주 생각코칭이란? / TAP 모델
- 2주 생각코칭 실습
- 3주 액션러닝으로 기독교세계관 가르치기
- 4주 Bible TAP 모델 & 크리스천 생각코칭 실습
- 5주 기독교세계관으로 책 & 영화보기

참가비 : 5만원(교재비별도)

신청방법 : 우리은행 375-184526-02-001(예금주 : 유경상) 입금 후 "크리스천 싱킹 센터" 네이버 카페 "1기 Former"란에 "이름/직분/교회명/교단/입금일"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특전 : 성적우수자들에게 생각코치 자격 부여, CTC 생각캠프 운영에 참여자격 부여,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심화 과정 신청자격 부여

문의 : 안성희 팀장(010-2792-5691)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0.1월)

개인회비_단위(원)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김태양, 김혜숙, 박경준, 오범석, 윤경선, 이수정, 조성진, 한인관, 황정현 4천 노승욱 5천 강은정,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은하, 김일환,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철수, 김태운, 김현, 김혜창, 남상수, 남서희, 마민호,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배무련, 범경철, 소종화, 손영일, 송시섭, 신기혁, 신현주, 심정하, 안용준,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명진, 이민화, 이영홍, 이월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인주, 이한기, 이향숙, 임선제,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남기, 장현일, 전정진, 전종화, 전충국, 정범채,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최한빈, 허재일, 홍성민, 홍승기, 황나란, 황의서 1만 권민규, 권혜창, 김경희, 김성상, 김세령, 김세완, 김승춘, 김영애, 김영완, 김영화,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중규, 김홍섭, 박시운, 박창우, 박한배, 서성록, 신효영, 양성만, 양성일, 오혜정, 원호영,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유회원, 이규원, 이길형, 이성수, 이시영, 이윤석, 이윤재, 이정길, 이종국, 임일택, 전성구, 전태수, 정현주, 조용현, 주성철, 허찬영, 황혜정 1만5천 최동원 2만 번우진, 이현정, 김방룡, 김중락, 박문식, 박신현, 오의석, 이근호, 임춘택, 정은애, 조무성 3만 장수영 5만 김성락, 손봉호, 송인규, 정희영, 채기현, 최홍영, 현은자 6만 강상우 7만 김중락 10만 윤완철 김의원 12만 안정진, 허기석 15만 양승훈 20만 김승태, 이선일 100만 김승욱 합계 3,641,000원

후원기관_단위(원)

3만 두레교회 5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영월주님의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한국성결교, 호산나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수영로교회, 언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새로운교회 합계: 3,530,000원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 또는 <통학연구>를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SAMSUNG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탭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탭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amsung
Anycall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2011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형일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이메일 접수-서류심사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합격발표

접수기간 2011년 3월 2일(월)~3월 20일(일) 한정된 인원만 선발하므로 접수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선발정원 20명

면접전형 3월 20일 이후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3월 28일

개강 4월 2일(교육기간: 2011. 4. 2~2011. 8. 27)

수강비

등록금 200,000원

수강비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1,000,000만원)을 외부후원으로 지원받습니다

강의과목

기독교세계관 강좌	미디어 이론 강좌	영상실습 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언론인의 자세	영상제작 기획과 스토리텔링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소명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영상연출(앵글, 구성, 콘티뉴리티 기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유비쿼터스시대 미디어의 성경적 의미	방송뉴스 조별제작 스튜디오 실습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	설득커뮤니케이션	편집이론과 실습
북한과 통일문제	촬영이론	국민일보 필드trip
기독교세계관과 생령윤리	편집이론	영상캠프(4박 5일)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뉴스원고 구성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구성

특징

손봉호(BBS캐원 해설위원), 이인용(전 MBC뉴스 앵커),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 실무진과 교수들의 명강의 교육협력기관(국민일보, CGN-TV, CTS)을 통한 실제적 교육과 필드trip 성적우수자 취업추천서 발급

교육협력기관



cmca.or.kr

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